

사회

골프장 매각 대금으로 학교 인수... 재산 도피용?

나주영산고 불법 매매 의혹

경찰, 횡령 등 수사... 이사장 "사실 무근"

나주영산고등학교의 이사장이 수 억원대 학교 운영비와 수익용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학교 안팎에선 사립학교의 경우 현행 법상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현 이사장이 재산 도피를 위해 편법으로 학교를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윤모(60) 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학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박 이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는 '학교법인은 매도나 증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이사장이 지난 2008년 7월 자신의 취임 전후로 전 이사장인 노모(68)씨 측과 50억원대 학교를 사고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씨의 학교의 불법 거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J(60)씨 등도 '학교가 매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박 이사장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박 이사장이 여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성 중이던 골프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주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학교 인수를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주의 시민단체 등은 박 이사장이 여주시 봉계동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당초 일정 금액을 여주시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지난 2008년 돌연 골프장을 매각하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 학교의 매매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J씨는 "현·전 이사장 측

의 입장을 고려해 학교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학교 매매 성사 직후 수수로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퇴직한 김 전 교장도 "학교 매입자금으로 52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가운데 6억 2000만원은 나주시 토지 보상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정당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J씨에게 건넨 돈도 나주 다시면의 땅을 사준 대가로 준 것일 뿐, 학교 이사장 취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하루 3시간 17일 노동...월급 17만원

장애인들이 '박봉' 설움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광주시 남구에 문을 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다수고용사업장)이 장애인들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남구 송하동에 국비와 구비가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식품제조 다수고용사업장 '한울가'가 개소했다. 한울가의 운영은 보건복지부 공보를 통해 선정된 모 사회복지재단이 맡고 있으며, 관리 및 감독은 남구가 담당한다. 개소 당시 한울가에는 남구 지역 중증장애인 30명이 고용됐으며, 이들은 최근까지 약 17일(유급휴가 2일) 간 하루에 3시간씩 총 51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나 한울가의 운영을 맡고 있는 복지재단 측은 장애인들의 임금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을 적용, 17일치 임금을 20만9610원으로 산정하자 장애인단체가 너무 적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일부 장애인들은 임금 20만

9610원에서 점심값 등을 제외한 뒤 17만원여원을 받았으며,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이 실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13~14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하루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일당을 받은 셈이다. 특히 광주시로부터 1년에 3억여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은 한울가가 최근 일반 직원들에게는 한 달 평균 1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장에서 정작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남구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울가에서 일하던 장애인 2명이 첫 임금을 받은 뒤 실망감으로 일을 그만뒀다"며 "아무리 일을 배우는 단계라지만 지나치게 급여가 적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울가 관계자는 "계약 당시 장애인들과 첫 2개월간 근무시간과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장애인들이 차츰 업무에 숙달되고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95) 김중두



특검, 스포서 부장검사에 징역 1년 추징금 64만원
민정식 특별검사는 13일 '스포츠 검사' 사건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정태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연필뉴스

인출기 놓인 돈 기부한 여성 '절도'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기부한 일반인 이주영씨가 경찰서행.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일본국적 T(여·55·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장모(여·37)씨가 놓고 간 현금 5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합쳐 10만원을 기부단체에 송금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운데는 현직 교사 1명과 서울지역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총 400~500명의 남성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성매매 업주·성매수 남성 32명 무더기 입건

광주서부경찰

불법 성매매 광고전단지 배포해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주와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3일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챙긴 성매매업주 김모(37·광주 북구 용봉동)씨 등 2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 인쇄업자 2명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등 남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주 김씨 등은 지난 9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등 유흥가에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받은 남성들에게 1차례에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 모두 5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운데는 현직 교사 1명과 서울지역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총 400~500명의 남성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사랑의 김장 두레' 13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센터에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김장 두레'를 갖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직원들이 반납한 해외 연수비용 1500만원으로 치러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촌 돌며 버 훔친 10대 3명 검거

화물차 이용 375포대
고창경찰은 13일 농촌지역을 돌아 다니며 상습적으로 버를 훔친 김모(19)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9)군 등 공범 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0일 자정께 영광군 영광읍 장모(60)씨의 차고에 몰래 들어가 40kg 짜리

버 61포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농촌지역을 돌며 버 375포대(시가 17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t 화물차를 이용해 버를 훔친 뒤 고창지역 내 정미소 등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취재본부=조종욱기자 jong@

민원현장 출동 공무원 차량 충돌사고로 숨져

13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목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광산구청 소속 임모(45·무기계약직)씨가 몰던 1.5t 승합차와 광산구청 소속 맹모(24·계약직)씨의 모닝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임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임씨는 이날 하수구 보수 민원을 받고 현장에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맹씨가 좌회전 금지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희기자 glee@

중선원 복어탕 먹고 1명 사망·1명 중태

13일 새벽 5시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선적 112t급 쌍타망 어선 '요대려어호' 기관사 임모(43)씨·윤모(36)씨가 복어탕을 끓여먹고 갑자기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임씨가 숨지고 윤씨가 중태에 빠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Advertisement for 'K' brand dehumidifiers.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Electronic dehumidifier (Avantgarde) New Dry box new electronic dehumidifier launch),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Suncheon, and Mokpo.

Advertisement for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Sunflower Dinner Show). It features a photo of two men sitting at a table and lists the date '2010. 12. 16(목) 19:00' at the Sunflower Dinner Show for ₩150,000. It also promotes a 'Christmas family buffet' with dates '12월 24일' and '12월 25일'.